

시선

사설

나는 ‘특별하다’는 인식  
구성원 반발만 가져올 뿐

-해정박물관 폭언 논란을 보며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 ‘community’의 어원은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한다. 이 ‘communis’는 ‘공동의’라는 의미를 갖는 ‘com’과 ‘의무·직무·분분을 다하는’을 뜻하는 ‘munis’의 합성어다. 이를 토대로 ‘community’의 의의를 풀어 해석해보자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무를 다하며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학공동체 역시 제 구성원이 저마다의 직무를 다하고 본분을 잘 지킬 때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의 대전제이자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최근 해정박물관과 노동조합, 그리고 감사행정원이 관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아쉬움이 읽히는 대목은 이 지점에 닿아있다. 해당 사건은 감사행정원의 정기간사 관련 서류제출 요청을 해정박물관이 거부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해정박물관 측이 밝힌 거부 사유는 크게 ‘부총장 결재완료’와 ‘인력의 미비’ 등이었다. 그런데 이 ‘거부’가 이후의 사건 경과(經過)를 불러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차적으로 대학공동체 내에서 감사행정원의 직무가 지니는 특별성에 기인한다. 감사행정원은 대학 내의 모든 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교유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때문에 감사행정원은 누구의 위험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감사활동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 기능이 마비된다면 결국 공동체 조직은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감사행정원이 그 권한 하에서 접근 가능한 범위는 총장이나 설립자의 결재완료 문서를 포함하는 ‘학내의 모든 자료’이다. ‘부총장 결재 여부’가 감사의 대상 여부를 가리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해정박물관 측이 밝힌 ‘인력의 미비’라는 사유는 많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배경과 사실이 깃들어 있든, 대학구성원인 해정박물관 측이 감사 시스템이라는 학내 행정 프로세스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는 많은 논란을 동반할 수 있다. 만일 해정박물관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합당한 경로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라는 것이 학내 질서에 대한 반발의 이유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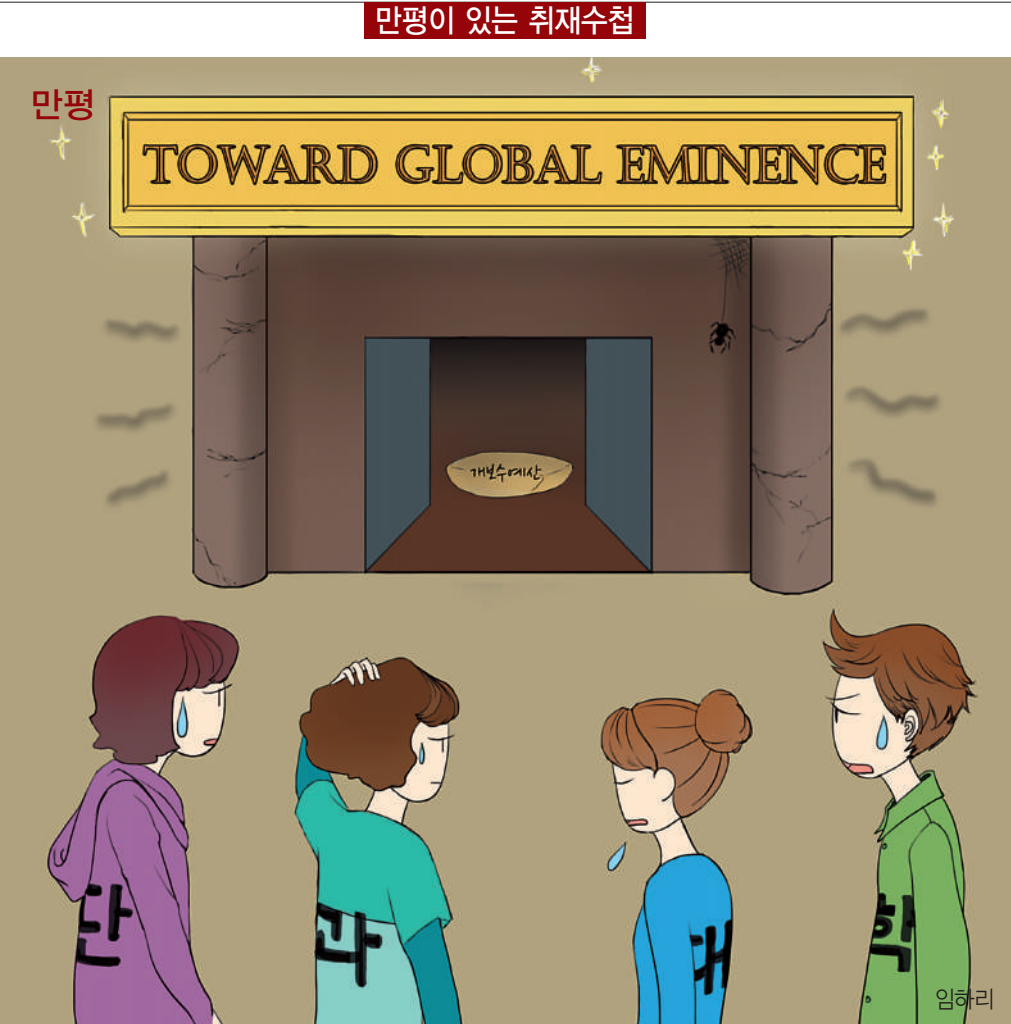
대학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그룹과 조직은 대학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구성원 각각의 역할과 책임과 직무가 모여 곧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에 모든 제 구성원은 저마다 소중하고 특별하다. 그리고 그 ‘소중함’과 ‘특별함’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조율하는 것은 결국 학내 규정이며 행정프로세스이다. 이 명제 덕분에 어떤 구성원이든, 심지어 한 대학의 설립자조차 초법적인 지위 아래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유화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책적인 추대가 행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김해정 관장의 말은 결국 ‘우선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지난 8일 본교에서 초청 강연

미디어 여론동향 2015. 3. 30 ~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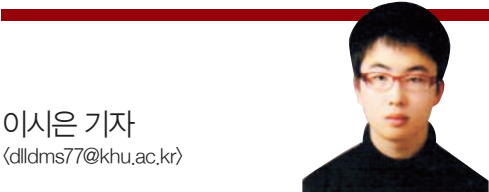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마을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의 프리마켓(Free market) 행사가 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정문 옆 카페 ‘Breeze’에서 열렸다. (“마을상권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대학주보 온라인, 2015.4.7) 우리학교 학생들이 7개 팀으로 나뉘어 의류, 악세사리 등을 판매했고,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들과 노래동아리 ‘알피움’의 공연도 이어졌다. 이번 프리마켓은 상가변영회와 같은 별다른 조직도 없는 마을 상권에 활력을 찾고자, 카페 ‘Breeze’ 운영자 김상연 씨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마을상권을 살려보려는 생각에 프리마켓 행사를 기획했다”며 “프리마켓을 통해



이 주의 주제 - 낙후시설과 예산편성 논란

물세는 천장·갈라진 벽, 그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불거진 정경대학의 낙후시설, 노후기자재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전수조사해 예상되는 소요예산까지 책정했기에 더 심각하게 다가왔다. 결국 지난 2일 부총장과 학장, 학생대표 면담에서, 학교 측이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게 됐다. 정경대학 학생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결과였다.

정경대학 학생들이 성과를 거두자, 당장 그동안 동일한 문제로 고민이 많던 각 단과대학들이 같은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실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은 정경대학보다 오래됐고, 공과대학이나 외국어대학 역시 1980년대 건축된 이래 내·외벽 보수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공간문제 역시 오랜 논란거리고, 지난해 우리 신문에서 제기한 것처럼 전자정보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은 더부살이 중이다. 고민이 없는 단과대학을 찾기가 더 힘들다.

그동안 개·보수 문제는 단과대학에서 민원사항을 모아, 관리팀과 기획예산팀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매겨 해결해왔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시급한 문제는 바로 조치가 이뤄졌지만, 그 밖의 문제는 저율질을

한창 해야 했다. 예컨대 SPACE21사업 등이 예정된 단과대학은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식이었다. 합리적인 우선순위 책정과정을 통해 개·보수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불만은 쌓여갔다. “건물이 눈에 보기에도 노후화됐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악취가 풍기는 데도 바뀌지 않는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각 단과대학의 자율운영예산에 맡기던 개·보수 문제를 대학본부에서 총괄하게 됐다.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정해져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 측은 “학생들이 보는 문제점과 전문가가 보는 문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가가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불편사항’은 당연히 이해 당사자인 학생, 교수 등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각 단과대학에서 ‘밀접하게’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대학본부가 ‘나서서’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학본부는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불편사항을 예산효율 등을 근거로 인내해달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대학의 기본인 교육여건 문제가 이런 상황에 몰려가기 전에 물세는 천장, 갈라진 벽 정도는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시험기간’(#경희숲\_7946, 2015.4.6)에 관한 내용의 글이 인기가 높았다. 이 글은 255개의 ‘좋아요’와 8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진짜 시험기간 인가 보다. 화장실 청소도 재밌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재밌다”며 “빨래를 널어놓고 대나무숲을 하고 있다”고 공부빼고 모두 재밌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대나무숲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다가온다”, “씻는 것도 꼼꼼하게 화장품 바르는 것도 꼼꼼하게 하는 시기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우리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추귀홍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대사를 초청, ‘전면적 발전관계에 들어선 한중 양국의 새 시대’란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경희대 주한 중국대사 초청 특강/경인일보,2015.4.9) 내빈,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추귀홍 대사는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중FTA가 발효되면 교류가 한층 증대해 양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사람도  
생각하는 ‘배려’를 갖자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던 꽃샘추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캠퍼스는 완연한 봄기운으로 가득하다. 화창한 봄 날씨와 함께 어우러지는 벚꽃 풍경은 올해도 학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본관으로 향하게 한다. 많은 학생들이 본관에 돛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도 나눠먹고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 올해도 어김없이 ‘본관놀이’의 시기가 도래했다.

본관놀이가 한창인 지금 이 순간에도, 낭만적인 풍경 너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양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대학생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벚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광경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 걸음한 공간에서 즐겁게 본관놀이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버려둔 쓰레기를 뒷정리 해주는 청소노동자 덕분이다. 본관 주변을 둘러싼 예쁜 풍경의 뒤편에는 본관 내에서 업무를 보는 교직원과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잔디밭에 앉아 배달음식을 즐기는 낭만 뒤에는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인구와 그 틈을 비집고 다니는 배달부의 오토바이, 그리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의 수고가 있다. 그렇게, 우리의 본관놀이 뒤에

눈앞에 보이는 벚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광경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본관놀이의 그림자들, 즉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나 과도한 소음문제,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 등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본관놀이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 제기된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한건 거의 없다. 그것은 ‘벚꽃이 만개한 본관 앞마당’이라는 분위기에 취해 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식 문제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한 철 이벤트’인 본관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한 번쯤은 ‘자유’에 앞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공동체적 책임감’에 대해 자성해보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작 이 공간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분들은 ‘우리의 한 철’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지난 8일, 관리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본관 분수대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관 진입로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관놀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작은 배려의 마음을 갖자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모일 때, ‘캠퍼스보다 아름다운’ 경희인의 모습으로 채워질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정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